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인원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12월 27일 화요일 (음 11월 29일) 제171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도내 제조업체 10곳 중 8곳, 내년 경기전망 비관

시국도 어수선한데 경제마저 '빨간등'

내부적 위협요인으로 '자금조달' 이 가장 커
사업 방향은 '현 상태 유지' 가 51.9% 차지

경영계획 수립에 들어간 도내 기업들의 내년도 전망이 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가 도내 제조업체 113개사를 대상으로 '내년도 경영환경에 관한 기업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와 비교한 내년도 경기전망에 대해 10개 기업 중 8개가 '악화(51.4%)'되거나 '올해와 비슷한 것(32.4%)'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호전될 것'이라는 응답은 16.2%에 불과해 도내 기업들은 2017년에도 우리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부적인 위협요인으로는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금리상승이 우려되는 데다 실적 악화까지 겹쳐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클 것(27.2%)'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정치갈등에 따른 사회혼란(26.6%)'이 바로 뒤를 이었다.

기업경영의 대외리스크로는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최근 환율이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음을 반영하듯 '환율 변동으로 인한 경영 리스크가 클 것(27.4%)'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20.7%)', '중국의 경기둔화(17.3%)' 순으로 응답률을 보였다.

더불어 한달 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이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응답으로는 '그렇다(59.8%)', '아니다(40.2%)'로 응답기업의 10개 중 6개 업체가 선거과정에서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한 트럼프 체제의 출범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66.9%가 '수립했다'고 응답했으며, 33.1%는 경영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아직까지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한편, 내년 도내 제조기업들의 사업 방향은 현상태를 유지하거나 대외리스크 관리에 치중하는 '보수적인 운영을 하겠다'라는 응답 51.9%와 혁신 기술 개발, 사업다각화, 해외 신시장 개척 등 '공격적인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라는 응답이 48.1%로 나타났다.

내년도 고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지역 기업들의 42.0%가 '올해와 비교해 고용을 늘릴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아직까지 고용계획을 세우지 않은 업체도 28.6%로 집계됐다.

반면 '내년 고용을 올해에 비해 늘리겠다'는 응답은 29.5%로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실적 악화와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당분간 지역 제조업체의 고용사정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2017년 정부가 가장 중시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는 소비심리 회복(19.8%), 금융시장 안정화(14.4%), 규제개선(13.7%), 정치갈등 해소(11.2%), 부정부패 방지(9.3%), 가계부채 완화(7.3%), 양극화 해소(7.0%), 신산업 육성(6.4%), 산업 구조조정(5.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 한국사회에 바라는 점으로는 최근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사회혼란을 반영하듯 '안정(16.9%)'을 바라는 응답이 비교적 많았으며, 뒤를 이어 소통(15.1%), 신뢰(14.9%), 공정, 정의(12.4%), 혁신(10.7%), 협력(9.7%) 순으로 조사됐다.

전북상협 이선홍 회장은 "올 한해 우리지역 제조기업들은 중국경제성장의 둔화와 브렉시트, 보호무역주의의 심화 등으로 수출전선에 비상이 걸렸으며, 안으로는 정치적 갈등에 따른 사회혼란 가중으로 인한 극심한 내수부진을 겪으며 힘든 한해를 보냈다"며, "정치갈등에 따른 사회혼란을 하루빨리 해소하고, 소비심리 회복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재용 기자

2007년 박근혜 - 최순실 관계 최초 폭로한

임현규씨 변호인, 특검팀에 합류

〈전종원 변호사〉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관계를 최초로 폭로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기소, 유죄를 선고받은 임현규씨의 재심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이 최근 박영수 특별검사에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변호사는 재심사건을 맡은 후 임씨가 2007년 작성했던 '박근혜-최태민 보고서' 등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민씨가 어떻게 재산을 형성했는지 상세히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합류는 최태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을 낱알히 밝혀내려는 특검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임씨 재심청구 사건을 맡은 전종원(46·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최근 특검팀에 합류했다. 전 변호사는 지난 2012년 디도스 특검 당시에도 특별수사관으로 참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 관계에 대해 처음으로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으로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임씨는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후 당시 제기했던 의혹의 상당 부분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면서 지난 11월 23일 재심을 청구했다.

임씨는 2007년 이명박 후보 캠프 정책특보로 있으면서 박근혜-최태민 보고서 관련 기자회견문과 검증 자료를 작성했다.

임씨는 해당 자료에서 박 대통령이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할 때 최씨 일가가 재단 운영에 관여해 재단 공금을 횡령하는 수법으로 막대한 재산을 형성했고, 박 대통령이 이를 변호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최씨는 임씨를 비롯해 김해호 목사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고, 유죄가 확정됐다.

전 변호사는 임씨 사건을 맡은 후 최씨 일가의 재산 축적 과정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전북도의회 황현 의장과 의원들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동료의원이 특정업체에 일감을 주고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는 소식을 접한 우리 도의원을 역시 무라 표현하기 힘들만큼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구습을 확실히 단절하겠다"고 말했다.

“선심성 예산 논란” 재량사업비 스스로 편성하지 않을 것”

특정업체와 결탁해 리베이트 받은 현직 의원 구속에 따라
도의회 “재량사업비 편성 모두 집행부에 위임할 것”

전북도의회가 그동안 의원 개인의 선심성 예산으로 논란을 빚어온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재량사업비)를 스스로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최근 현직 도의원이 특정업체에 일감을 주고 이른바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등 논란이 일자 '분위기 쇠신'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

26일 도의회 황현 의장과 도의원은 26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료의원이 특정업체에 일감을 주고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는 소식을 접한 우리 도의원을 역시 무라 표현하기 힘들만큼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구습을 확실히 단절하겠다"고 말했다.

‘비선’ 최순실 혐의 전면 부인

국조특위 비공개 접견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최순실'은 26일 2시간 30분 가량 진행된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들과의 비공개 국조특위 접견에서 혐의 내용 일체를 전면 부인했다. (관련기사 3면)

국회 최순실 국정조사는 이날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최순실과 비공개 접견을 했다.

최순실은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의혹,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의 관계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거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최순실은 미르·K스포츠재단 아이디어는 누가 냈느냐는 질문에 "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지 않았다"고 부인했고, 박근혜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됐는데 혐의를 인정했느냐는 질문에 "인정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삼성에 직접 자금지원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나는 삼성에게 부탁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김기춘, 우병우를 아느냐는 질문에 "우병우, 김기춘, 김장자를 전혀 모른다"고 강력 부인했다.

정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차관택 감독이 "최순실의 요청을 받아 김중덕, 김상룡을 추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뉴시스

1인당 4억5000만원씩의 도예산과 1억원의 도교육청 예산을 재량껏 활용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업체와 결탁해 뒷돈을 받는 등의 문제가 불거져 최근 도의원이 구속된 바 있다. 도의회는 "의원 개인의 선심성 예산이라는 부정적 시각과 업자와의 유착 의혹 등이 제기된만큼 예산을 스스로 편성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앞으로 동료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투명하게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숙원사업비는 농로를 반

듯하게 정비하고 시급한 현안민원이 발생했을 때 집행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혜택을 주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며 "앞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 주민숙원사업비가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황현 의장은 "앞으로 제도를 개혁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으로 도민 여러분의 기대와 사랑에 보답하는 지방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며 "10대 도의회가 전북의 가치를 높이는 협치 의회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남은 임기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謹賀新年

칭찬합니다!

용지 사용부터 친환경용지를 고집하는
EBS의 교육이념을 칭찬합니다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친환경을 실천하는 착한기업이 있어서 칭찬합니다. 바로 대한민국 대표 교재인 EBS 교재입니다. 친환경용지 제조된 친환경 교재를 사용하면 우리 아이의 인성은 물론 환경뿐만 아니라 교재에도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국가정책에도 도움이 됩니다. 친환경용지 1톤을 사용하면 이산화탄소 49%, 대기오염 물질 74%를 줄일 수 있으며 하루 2,700톤 정도 폐지를 재활용하면 매일 30년 생 소나무 43,000그루를 심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간 100만톤 중이 수인에 따른 외화비용을 줄일 수 있고 친환경 산업 육성을 통해 친환경과 국가 경쟁력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전체 GR인증 받은 친환경종이로 만든 친환경 교재는 일반종이보다 우리 아이들과 환경, 가계 경제 그리고 국가경쟁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통해 더욱 많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더욱 묵묵히 친환경을 실천하는 착한기업을 계속 발굴해서 칭찬의 마음을 이어가겠습니다.

6rg 한국자원순환연맹대표회
Korea Recycling Corporate Coalition
Global Leader in Paper
전주페이퍼